

추 모 사

소백산의 울창한 신록이 상월 원각조사의 추모 법요를 장엄하고 있습니다. 굽은 수목이 발현하는 생명의 짙은 향기는 깊은 뿌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민족은 수많은 전란과 침략을 이겨내며,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부해 왔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뛰어난 선각자들의 출현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규합하여 삶을 지탱할 수 있게 심지를 더욱 굳건히 하였습니다.

상월조사 또한 일제 강점기와 6.25를 겪으며, 실의와 도탄에 처한 민중을 위해 불교 대중화에 노력하셨습니다. 암울한 시기임에도 “대중 불교, 생활불교, 애국불교”라는 삼대 원력을 세워 불교중흥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역경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경제적 기적을 이룬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문화와 사상의 급속한 유입으로 문화적 혼란과 함께 우리의 숭고한 정신적 가치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경직되어 있으며, 지역간, 계층간 갈등과 빈부의 격차 확대, 청년실업난은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인과가 있듯이 우리 사회의 모습은 모두의 공업입니다. 상월조사께서 근·현대 민족의 암울했던 시기에 원력을 세우고 수행과 정진으로 불교중흥에 노력했듯이, 2천만 불자 모두는 깊이 성찰하여 여러 갈등의 모습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실천해 나아갑시다.

불자여러분,

자비와 보살행으로 모든 중생을 구하고, 깨달음으로 중생계의 고통에

서 번어날 것을 서원한 우리 불자 모두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삶으로 불국정토 건설을 위해 함께 실천해 갑시다.

제38주년 추모 다례제를 맞아, 상월조사의 뜻을 다시 새기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불자가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기 2556년 6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 승